

광주시,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음악회 연다

광주예술의전당 26·27일... 국악·교향악으로 추모·연대 전해
광주·전남 6개 예술단체, 유가족·시민 위로... 전석 무료 공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6일과 27일 오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2월29일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사고현장 지원에 헌신한 봉사자들, 그리고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6일 오후 7시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진혼, 기억'을 주제로 추모공연을 선보인다. 사회는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 씨가 맡는다.

공연은 망자의 천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광주시립창극단의 '진도씻김굿'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민 소리꾼 장사익이 무대에 올라 '찔레꽃', '꽃구경', '아리랑'을 노래하며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피날레는 이정호 작곡가의 국악 레퀴엠 '진혼'이 장식한다. 광주시립관현악단과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소년소녀합창단, 목포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등 광주·전남지역 6개 예술단체가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공연을 펼친다.

'진혼'은 진도씻김굿을 동기로 제작된 작품으로, 라틴어로 된 가톨릭 미사의 합창 가사와 진도씻김굿 길닦음 중 '애소리', '하직소리', '재화', '나무아미타불', '진공'을 차용해 종교를 넘어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곡'이다.

26일 공연은 6세 이상(2020년생 포함) 관람가로 전석 무료이며, 티켓 예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유료회원 선예매가 시작되며, 일반회원은 19일 오후 2시부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둘째 날인 27일 오후 5시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를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참사로 희생된 179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떠올리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연주회는 '슬픔 → 기억 → 위로 → 연대'의 흐름으로 구성해 각자가 고인을 떠올릴 시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음악과 낭독이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조용히 전한다.



첫 무대인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로, 절제된 선율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담아 애도의 시간을 연다. 이어 존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을 바 이올리니스트 김범소리와 협연, 담담한 선율로 삶의 흔적과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세 번째 무대에서는 작가 황석영이 고인을 위한 글을 직접 낭독하며, 관객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이끈다.

마지막 무대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3번 제6악장'으로 장식한다.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는 문장으로 알려진 이 곡은 말러 작품 중 가장 내밀한 정



서를 담고 있으며, 고인을 기리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조용한 연대를 음악으로 풀어낸다.

27일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2018년생)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무료다. 티켓 예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유료회원 선예매가 시작되며, 일반회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1인 2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 전담장은 "참사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질문들이 남아 있다"며 "이들간의 공연이 그 마음들 가까이 조심스럽게 놓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진도군, 영화 '결혼해줄래' 2026년 상반기 개봉! 영화로 만나는 진도 이야기... 진도의 풍경과 삶 화면에 담다

진도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하나로 제작한 영화 '결혼해줄래'를 오는 2026년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결혼해줄래'는 수려한 진도의 풍광을 배경으로 학력과 사회적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여성의 삶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와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속 주인공 '수연'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진도로 돌아와 타인의 삶과 아픔을 마주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해 나간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삶을 치유하는 과정을 담아내며 지친 일상에 위로와 감동을 전한다.

영화는 장완복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문경(수연 역)과 이상현(준호 역)이 주연으로 출연해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고, 배우 박재관(동식 역), 원주연(선희 역), 황지원(유라 역) 등이 출연해 우정과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관계를 그려낸다.

특히, 영화에는 진도의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지역 공동 상표 '진도온(JindoON)'이 등장하는데, '진도온(JindoON)'은 언제나 밝게 불을 밝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활



력 넘치고 건강한 진도의 농산물을 상징하는 인증 상표다.

또한, ▲진도대파크림빵 ▲진도전복 ▲진도홍주 ▲진도개 ▲신비의 바닷길 ▲세방낙조 등 대표 관광 자원이 등장해 진도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영화 '결혼해줄래'를 통해 진도의 매력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지역에 따뜻한 관심과 활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창작예술촌 3호 순천 여류작가 초대전 '동화(冬華), 겨울빛에 피어나다'展 겨울의 강인한 생명력과 따뜻한 감성을 담은 회화 작품전

순천문화재단은 오는 22일 오후 5시 개전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순천창작예술촌 3호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 1층 전시관에서 순천 여류작가 초대전 「동화(冬華), 겨울빛에 피어나다」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순천에서 활동 중인 서양화 여류작가 6명이 참여하며, 주로 꽃과 풍경을 소재로 작가의 섬세한 시선과 직관적인 감수성을 담은 작품 18점을 선보인다. 각 작품은 겨울의 고요한 숨결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따뜻한 빛과 생명력을 전한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생명이 움츠러드는 계절, 선명하고 단단한 겨울의 꽃처럼 따뜻하면서도 깊은 색감을 지닌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전시 기간 동안 창작예술촌 3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



천문화재단 누리집(www.cfsc.or.kr) 또는 창작예술촌 3호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070-7784-6655)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나주문화재단, 2025 성과공유회 '나빌레라 문화 동행' 개최

출범 이후 추진한 문화사업 성과 공유... 시민과 예술인 소통의 장 마련

나주문화재단이 출범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문화예술 사업 운영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예술인과 시민 간 문화적 교류를 넓히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마련한다.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주요 문화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2025 나빌레라 문화 동행'을 오는 12월 22일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해 3월 출범한 나주문화재단이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돌아보고 지역 문화의 흐름과 성과를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문화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네트워크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뮤지컬 명성황후 갈라콘서트', '북한문화축제 나나랜드',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 다울림 창작소', '로컬 기획학교 나주곶간', '문화예술교육 금성산에서 살아남기', 'AI 음악 프로젝트 이봄과 인피니아가 들려주는 미래의 선율' 등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문화예술 사업 성과를 시민과 공유한다.

이와 함께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인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자연의 영도', '2025 행복전남 문화지소 농부의 미학', '예술 후원 부스'를 함께 관람하는 '나빌레라 동행'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부대 프로그램 '온기 나눔'도 운영할 예정이다.

'나빌레라 문화 동행' 성과공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나주문화재단 누리집과 공식 SNS에 게시된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다.

나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공유



회는 나주문화재단 출범 이후 쌓아온 문화적 성과를 시민과 함께 돌아보고 지역 문화예술이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연말의 문화 동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국민의 마음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지

금이 있습니다

여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기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